

K-레트로(Retro)

: 과거를 간직한 현대의 문화, 경북 청도의 레트로 마을

K-Retro: Modern Culture Preserving the Past, Retro Village in Cheongdo,
Gyeongsangbuk-do

이종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K-Culture는 대중음악과 영상 콘텐츠 중심의 4차 한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내부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에서는 과거의 요소를 차용하는 레트로 현상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밀레니얼 세대와 MZ세대는 과거의 문화를 재해석하며, 이를 통해 감정적 만족, 사회적 연결, 향수 등의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레트로 트렌드는 미디어 매체나 상품 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과 관광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기능이 다한 건축물이나 쇠퇴한 구도심이 공간 업사이클링 및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레트로적 장소성을 획득하고 있다. 낙후된 건물과 사물 등 기존의 형태를 보존하면서도 취향에 맞게 재배치



〈사진 1〉 유천역사 복원 사진

(출처 : 경상북도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강원 지역 문화 콘텐츠와 문학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0421whddus@naver.com

하는 구조적 활용성, 그리고 장소가 지닌 역사와 지역적 맥락을 소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인지적 장소성이 결합하여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의 레트로 문화 마을은 화려한 현대 도시 이면에 존재하는 한국의 근현대 생활상과 압축적 경제 성장기의 정서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실체적인 공간이며, 이는 K-Culture의 스펙트럼을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문화 사이의 근현대 영역으로 넓히는 가치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여러 레트로 관광지 중 경상북도 청도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레트로 문화 마을이 지닌 공간적 특징과 문화적 가치를 서술하려고 한다. 청도의 유천마을과 신도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의 생활상과 7080 감성을 시각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1. K-레트로 문화

레트로 문화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광 및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주요 소비층인 MZ세대의 미디어 소비 방식과 4차 한류의 확산이 존재한다. MZ세대는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으로, 콘텐츠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공유하고 재가공하여 확산시키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전후로 본격화된 4차 한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요소를 차용한 레트로 콘텐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팬덤을 지닌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1980년대 디스코 장르와 복고풍 색감을 활용한 음악과 영상을 선보이며 세계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인 X세대와 문화적 동질성을 보이며 과거의 아날로그 콘텐츠를 거부감 없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공감과 SNS를 통한 능동적인 확산은 레트로 문화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적인 문화 패러다임으로 정착하는 기반이 되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레트로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문화적 실천이다. 이들은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장기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날로그 방식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인간적인 감성을 추구한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겪지 못한 1980~1990년대의 문화를 접할 때, 이를 낡은 것이 아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자극이자 역사적 노스텔지어로 수용한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기능적 필요를 넘어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구축하고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량 생산되는 획일화된 현대 제품이나 유행 대신, 희소성과 독특함, 그리고 오랜 역사가 깃든 헤리티지를 지닌 레트로 문화와 공간을 소비한다. 이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고 개성을 드러내며, 레트로가 지닌 고유의 상징적 의미를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2. 우리나라의 레트로 문화 마을

현재 한국의 레트로 문화 마을은 특정 대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중소도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인 역사적 궤적을 지닌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직후, 혹은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에 상업적·교통적 요충지로 번성하였으나, 이후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망 이동으로 인해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를 겪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정체는 해당 지역들이 과거의 건축물과 생활상을 훼손 없이 보존할 수 있는 물리적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레트로 마을은 과거의 낡은 건물을 물리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현대적인 감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의 시간여행마을은 근현대사가 혼재된 대표적인 레트로 관광지다. 일제강점기 미곡 반출의 중심지였던 군산은 당시 지어진 일본식 가옥과 동국사 등 근대 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1980~1990년대의 풍경을 간직한 초원사진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을 활용한 경암동 철길마을과 한국전쟁 피란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산비탈의 말랭이마을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간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충청남도의 부여와 서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쇠퇴한 상권을 레트로 공간으로 전환했다. 부여의 규암마을은 1960년대 백제교 건설 이후 생활권이 이동하며 방치되었으나, 최근 젊은 공예가들이 유입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80년 된 담배 가게를 책방으로 개조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 업사이클링을 통해 세련된 문화 거리로 재생되었다. 반면 서천군 판교면은 ‘시간이 멈춘 마을’로 불리며 1980년대의 풍경을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충남 3대 우시장으로 꼽히던 과거의 번성기 이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동일주조장과 옛 극장 공관, 사진관 등의 건축물이 당시의 간판과 외형을 유지한 채 보존되어 있다.

경기도 동두천의 보산동 일대와 동광극장은 미군 주둔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만든 레트로 공간이다. 1959년에 개관한 동광극장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으로, 과거의 영사기와 수기 상영 시간표 등 1960~1970년대 극장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인접한 보산동 관광특구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미군 부대 주변의 다문화적 색채와 복고 분위기가 혼재된 형태를 보인다.

레트로 관광지는 과거의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거나 인위적으로 개조하는 대신,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공간 업사이클링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기존 건축물의 골격을 활용하여 구조적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기존 건축물이 가진 형태적 구조와 내·외벽을 소거하지 않고 노출시키거나 보존하여 방문객이 공간의 과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과거 공장이나 창고, 인쇄소, 병원 등으로 쓰였던 공간의 높은 층고, 거친 콘크리트 벽면, 폐자재 등은 감춰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로 재배치된다. 이러한 의도적인 불편함과 거친 구조는 현대적인 건축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방문객은 매끄럽게 정돈된 공간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누적된 공간에 머무름으로써, 기존 장소의 역사와 맥락 속으로 직접 진입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공간 업사이클링을 거친 레트로 관광지는 물리적인 구조 보존에 그치지 않고, 장소가 지닌 역사적·지역적 요소를 현재의 맥락에 맞게 재활용하는 인지적 장소성을 발현한다. 과거의 흔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설의 간판, 낡은 기계, 생산 소품 등을 상징적인 오브제로 활용하여 해당 공간이 과거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방문객이 명확히 인지하게 만든다. 이처럼 사물과 구조를 보존하는 구조적 활용성과 맥락을 살리는 인지적 장소성이 결합하여 레트로 공간만의 고유한 형태적 특성이 완성된다.

미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형태적 특성은 오래된 공간과 현대적 요소가 혼재하는 신구(新舊)의 조화로 나타난다. 낙후되고 낡은 벽면이나 거친 구조물 사이에 현대적인 조명, 세련된 가구, 감각적인 예술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요소의 충돌은 방문객에게 생경하지만 불쾌하지 않은 미학적 희소성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과거의 사물들이 현재의 맥락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며 공간적 조화성을 이룬다. 이는 레트로 관광지가 일회성 소비 장소를 탈피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현대적 미학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3. 경상북도 청도의 유천마을과 신도마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와 내호리 일대에 위치한 유천마을은 과거 동창천과 청도천이 합류하는 지형적 특성 덕분에 영남대로의 관문이자 상업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이다. 현재는 공식 행정 지도상에서 사라진 지명이지만, 마을의 수많은 가게는 여전히 ‘유천’이라는 명칭을 간직하고 있다. 2000년 경부선 철로 이설로 인해 유천역이 밀양 쪽으로 이동하여 상동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권이 붕괴되면서, 마을의 물리적 환경은 전통적인 형태를 간직한 채 보존되었다.

유천마을의 핵심적인 레트로 자산은 인위적으로 재현된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근현대 생활사가 누적된 건축물들이다.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영신정미소’는 현재까지도 나락과 등겨 먼지를 날리며 도정 기계를 돌리고 있는 현역 정미소다. 1967년에 개관한 ‘유천극장’은 TV 보급으로 1990년대에 문을 닫고 2008년 화재를 겪기도 했으나, 유천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외관이 복원되었다. 극장 전면에는 1968년작 영화 <별아 내 가슴에> 등의 장면이 감쪽같이 재현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독학 기술로 흑백 TV를 고쳐주던 ‘중앙소리사’, 돌로지어진 독특한 건물인 ‘구생당한약방’, 박공지붕 외형의 ‘옛 양조장(사료판매소)’ 등이 골목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25년이 넘는 ‘새천년이용소’의 안방에는 벽지 대신 과거의 신문지로 도배된 흔적이 남아 있어 세월의 지층을 증명한다.



〈사진 2〉 유천극장
(출처 : 영남일보)

또한 유천마을은 시조 시인 이호우·이영도 오누이의 생가가 위치한 정서적 공간이기도



〈사진 3〉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신거역과 박정희 동상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아카이브)

하다. 기와집 벽면에는 시인 이영도와 청마 유치환의 사랑 서사를 담은 시 〈행복〉과 우체통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 디지털 세대에게 과거의 아날로그적 연정과 레트로 감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청도읍 신도리에 위치한 신도마을은 한국의 농촌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발상지다. 1969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해 복구 현장 시찰을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제방을 복구하고 지붕과 담장을 개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기차를 세운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듬해인 1970년 4월 정부가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신도마을을 예로 들며 농촌 자조 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태동하였다.

신도마을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시대적 재현 공간과 농촌 문화 체험장을 구축하였다. 1989년 문을 닫은 경부선의 폐역인 ‘신거역’은 2007년 청도군이 인수하여 복원하였으며, 내부에는 과거 비둘기호 열차 여객운임표와 열차 시간표가 보존되어 있다. 역 좌측으로는 대통령 전용 귀빈 객차(달리는 집무실)를 재현한 열차가 전시되어 있으며, 1969년까지 운영되었던 ‘신도정미소’에는 당시 곡물을 도정했던 옛 흔적과 내부 도정 기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을 뒤편 언덕에 조성된 ‘새마을테마파크’는 1970년대의 농촌 생활상을 세트장 형식으로 재현했다. 새마을학교 교실, 칠판, 책상, 오르간, 난로와 초가집, 슬레이트집, 기와집, 새마을구판장, 공동 빨래터, 왕대꽃집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성냥통, 책가방, 옛날 소주병,

영화 포스터 등의 오래된 소품을 통해 과거의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청도 유천마을과 신도마을은 레트로 문화와 문화적 도시재생 및 인지적 장소성 발현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두 마을은 인위적인 세트장이 아니라 과거의 건축물과 지역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종의 공간적 아카이빙을 실현하고 있다. 영신정미소나 유천극장과 같은 실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은 낡은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조적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장소가 지닌 역사적 맥락을 방문객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인지적 장소성을 발현한다.

청도의 레트로 마을은 M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추구하는 역사적 노스탤지어의 충족 공간으로 기능한다.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1970~1980년대의 시대상인 새마을운동, 다방, 양조장 등을 대면함으로써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느낄 수 없는 아날로그적 신선함과 미학적 희소성을 경험하게 한다.

청도의 사례는 상업 자본에 의해 소비 공간으로 부각된 타 도시재생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양식을 모방하는 레트로가 아닌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소비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4. 경북 청도 레트로 마을의 문화적 가치

경북 청도의 레트로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의 레트로 문화 마을이 지닌 공간적 특징과 문화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레트로 현상은 과거의 물리적 보존에 국한되지 않고, MZ세대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소비와 자아정체성 탐구 과정이 결합된 문화적 실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 활용성과 인지적 장소성의 발현은 방문객에게 독특한 미학적 경험을 제공한다.

청도의 레트로 공간은 한국의 압축성장 기저에 흐르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와 서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가공된 인위적 세트장이 아닌, 90년 역사의 정미소와 오래된 극장이 실제 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져 있는 유천마을은 한국 근현대사의 진정성 있는 장소성을 보여준다. 이는 박제된 표본이 아닌, 일생을 바친 노고가 깃든 진짜 과거 풍경을 보존하여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상업적 목적의 공간 개조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실제 생활사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90년 역사의 영신정미소가 현재까지 도정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 유천마을의 사례는, 건축물의 외형 보존과 더불어 그 공간의 원래 기능까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실재적 아카이빙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청도 신도마을은 한국 농촌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해 제방을 복구하고 환경을 개선한 자조(自助)와 협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폐역의 열차 시간표, 1970년대 구판장 등의 요소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K-Culture를 접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피로감에서 벗어난 시각적·감각적 신선함을 제공한다.

타 지역의 레트로 공간들이 외세의 유입이나 전쟁 등 타의적 역사에 의한 흔적을 시각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청도는 스스로 공동체를 변화시킨 자발적 근대화 시기의 정서와 서사를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청도의 레트로 마을은 한국 근현대 생활사를 실체적으로 증명하며, 내국인에게는 자아정체성 탐구의 기회를,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K-Culture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부여하는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References]

- 김지연, 「밀레니얼 세대의 레트로 소비에 대한 문화적 의미와 자아정체성: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박재현, 「MZ세대의 미디어콘텐츠 소비 패러다임 연구: 4차 한류와 레트로 현상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지원,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에 나타난 레트로적 장소성의 특징 및 경험 연구: 을지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정다인, 박보람, 「공간 업사이클링을 통한 레트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카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3),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 권다현, 우리 추억 여행 떠날까? 군산 시간여행마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2024.01.30. (<https://korean.visitkorea.or.kr>)
- 김정선, [imagine] 근대문화도시 군산 ② 레트로 감성과 재생의 거리, 연합뉴스, 2024.03.26. (<https://www.yna.co.kr/>)
- 김혜민, [주말여행] 7080 레트로 감성에 젖어들다...청도에서 “잘 살아 보세”, 여행스케치, 2019.11.14. (<https://www.ktsketch.co.kr/>)
- 노규엽, ‘시간이 멈춘 마을’로 떠나는 레트로 여행, 여행스케치, 2021.03.15. (<https://www.ktsketch.co.kr/>)
- 박경일, 1967년 문연 극장, 흑백TV 늘어섰던 소리사... 여기가 찐 ‘레트로 마을’, 문화일보, 2026.04.02. (<https://www.munhwa.com/>)
- 박상준, 레트로 여행, 동두천으로 가보자고! 동광극장과 보산동관광특구,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2024.01.25. (<https://korean.visitkorea.or.kr/>)
- 장보영, 팔공산 북쪽 작은 마을에서 추억하는 그때 그 시절, 군위 화본역과 엄마아빠어렸을적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2024.01.30. (<https://korean.visitkorea.or.kr/>)
- 진우석, 젊은 공예가들이 만드는 레트로 마을, 부여 규암마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2024.01.30. (<https://korean.visitkorea.or.kr/>)
- 최영진, 그때의 감성에 볼 빨간 청춘들... ‘우리 동네 레트로’는 어디?, 이코노미스트, 2024.03.02. (<https://economist.co.kr/>)

